

반도체 주도 성장 지속



Economist

이진경

☎ (02) 3772-2634

✉ jk.2@shinhan.com

하건형

☎ (02) 3772-1946

✉ keonhyeong.ha@shinhan.com

2월 수출 YoY 29% 증가, 9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치. 수입 7.5% 증가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 늘며 9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설 연휴로 전년대비 조업일수가 3일 적었음에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 역시 49.3% 증가한 35.5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다. 무역수지는 155.1억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 주요국 전반에 걸친 수출 증가세 (품목) AI/IT 중심 강한 수요 재확인

2월에도 주요국 전반에 걸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미국 수출(+29.9%)은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일반기계 등은 부진했으나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강하게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34.1%)은 양국의 연휴에도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이 크게 증가해 양호했다. 대EU 수출(+10.3%)은 양호한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그 외 아세안(+30.4%), 인도(+8%) 등 신흥국 수요는 품목 전반에 걸쳐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AI와 비AI 간 품목별 차별화가 지속됐다. 반도체(+160.8%)는 AI 투자 확대 속 메모리 고정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251.6억달러)을 경신했다. 컴퓨터(+221.6%) 역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구경제 품목은 대체로 미진한 수요를 이어갔으나 철강,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 감안 시 완만한 회복을 보였다.

강력한 반도체 수출 사이클 지속. 기저효과 약화 속 연중 지표 변동성에 유의

2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반도체가 핵심 축으로 자리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다만 반도체 수출의 물량·단가 동반 개선에도 단가 상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초과수요 환경의 정점 통과 시 단가 효과의 약화가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수요의 지탱 속 양호한 반도체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구간이다.

고부가가치 IT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됐다. 다만 구경제 품목 가운데 철강·석유제품 등 일부는 일평균 기준 완만한 회복 흐름이 감지된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감소 기조에 따른 공급 부담 완화로 단가 회복 효과가 일부 가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유 등 일부 업종에는 단기적 반사수혜 요인으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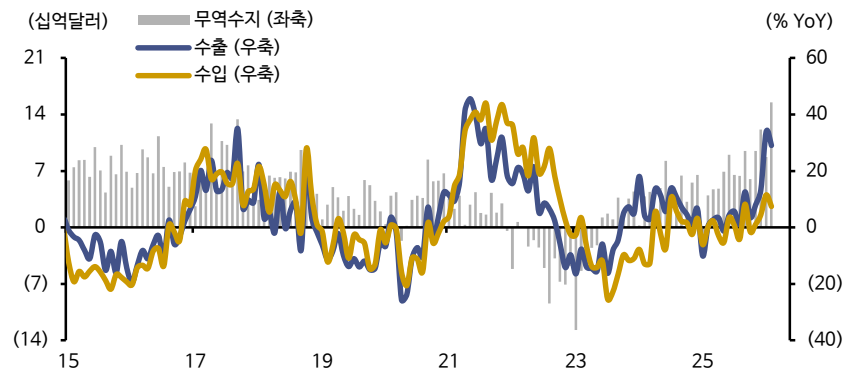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의 반도체·IT 의존도 상승은 강력한 단기 실적 개선 요인임과 동시에 향후 수요 사이클과 기저효과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요인이다.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던 구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가며 점차 기저 부담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중 지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잔존한다.

수출입 요약

	25.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수출 (% YoY)	1.1	12.6	3.5	7.9	13.3	33.8	29.0
일 평균 수출 (% YoY)	5.6	(6.2)	13.8	12.7	8.6	13.9	49.3
원화 환산기준 수출 (% YoY)	3.7	17.4	8.2	13.0	15.9	34.0	29.4
대미국 수출 (% YoY)	(12.3)	(1.4)	(16.2)	(0.2)	3.7	29.4	29.9
대EU 수출 (% YoY)	(9.8)	19.3	(2.3)	(1.9)	0.5	6.9	10.3
대일본 수출 (% YoY)	(4.9)	3.3	(8.4)	(7.4)	(7.1)	(4.9)	0.6
대중국 수출 (% YoY)	(3.1)	0.5	(5.1)	6.6	10.1	46.8	34.1
수입 (% YoY)	(4.1)	8.3	(1.5)	1.1	4.6	11.6	7.5
일 평균 수입 (% YoY)	0.2	(9.8)	8.3	5.6	0.2	(5.1)	24.4
무역수지 (십억달러)	6.4	9.5	6.0	9.5	12.1	8.7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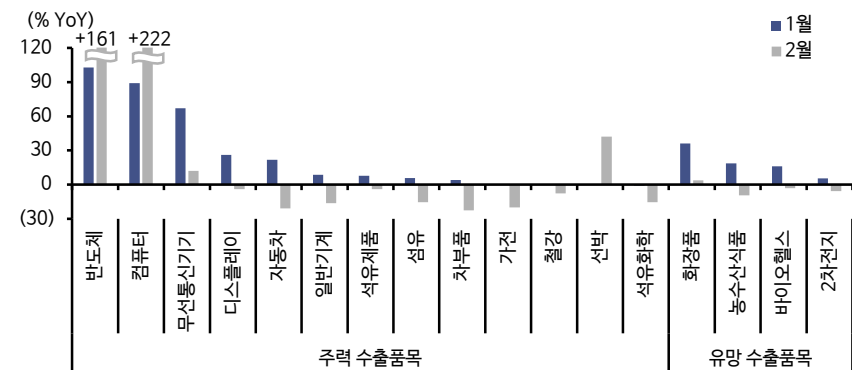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한국 수출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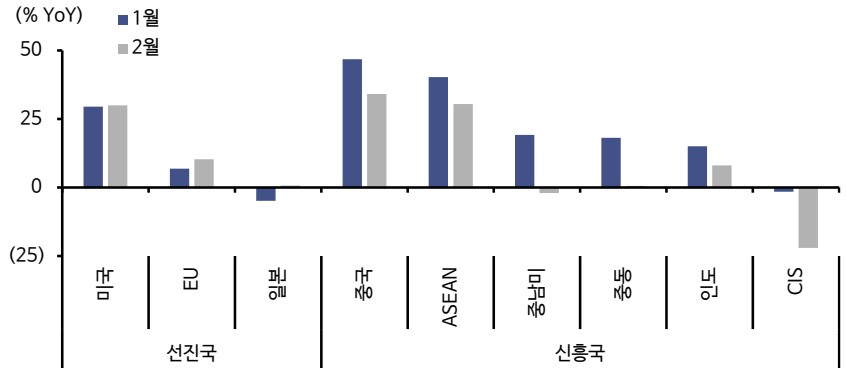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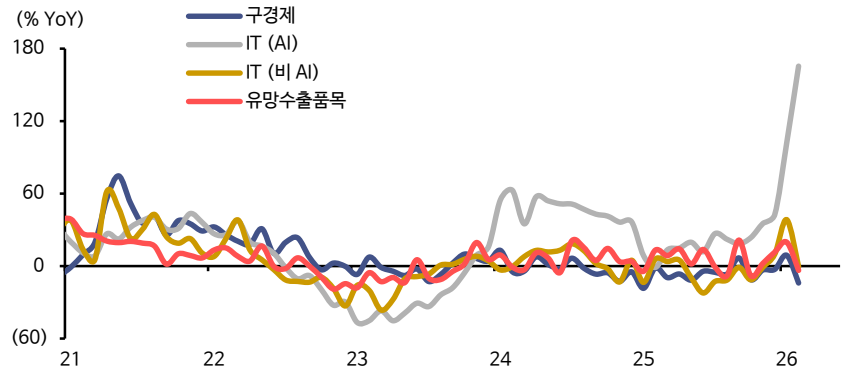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국가 및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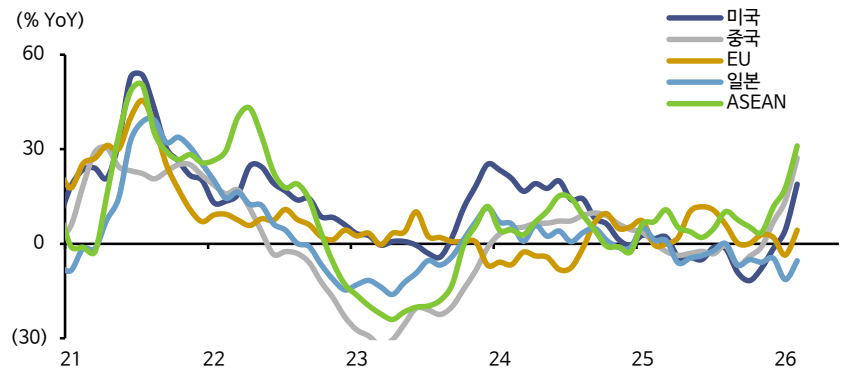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주요 품목군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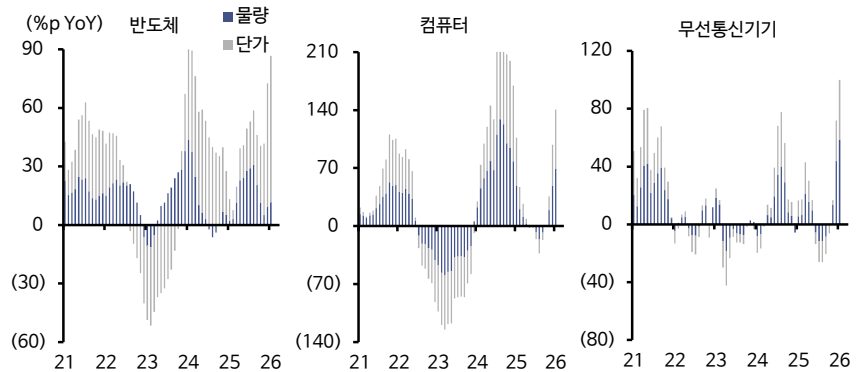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CEIC, 신한투자증권

지역별 일평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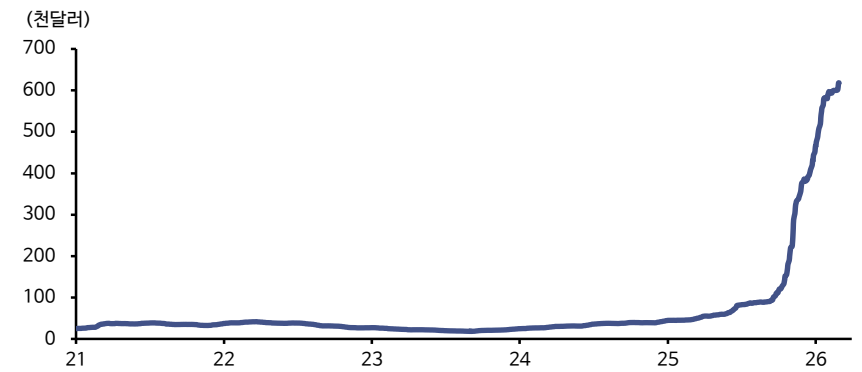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주요 IT 업종별 수출 물량, 단가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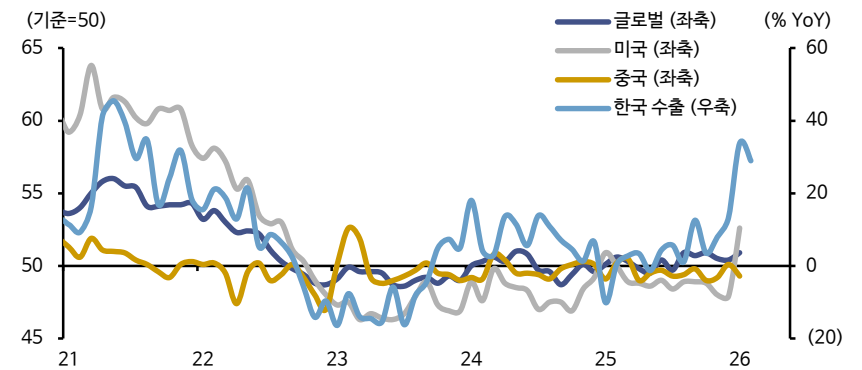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 주: 3개월 이동평균 기준

DRAM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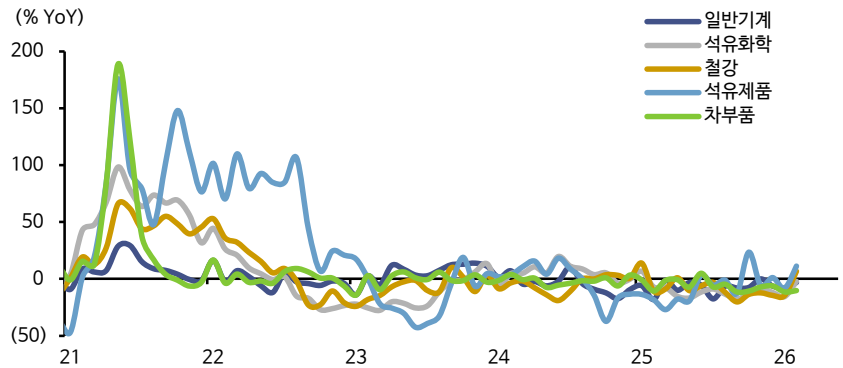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요국 제조업 PMI와 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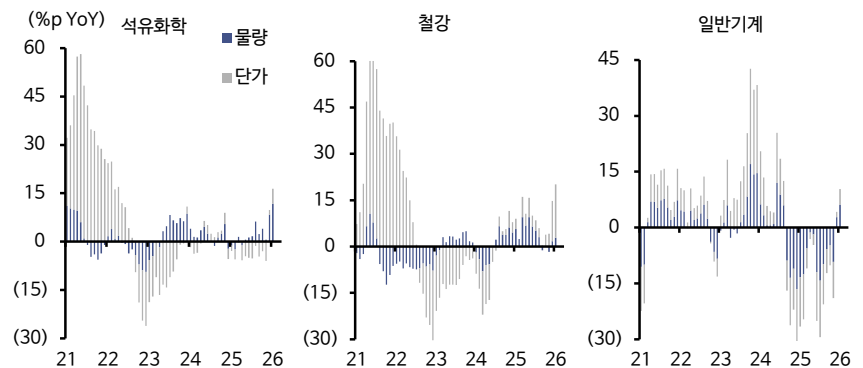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요 구경제 품목 일평균 수출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주요 구경제 업종별 수출 물량, 단가 분해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 주: 3개월 이동평균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진경, 하건형).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